

류현진, 14년만에 태극마크 달까...“기회 주어진다면 하고파”



2010년 광저우AG 국가대표가 마지막...이후 부상에 발목
올해 11월 WBSC 프리미어12 예정...류중일 감독 지휘봉

한국을 대표하는 좌완 투수였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은 KBO리그에서 활약하던 시절 대표팀 에이스로도 이름을 날렸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된 류현진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준우승,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앞장서며 한국 야구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두 차례 선발 등판해 17⅓이닝을 던지며 10피안타(2 홈런) 2자책점(평균자책점 1.04)으로 패투를 선보였고, 탈삼진 13개를 뽑아냈다. 류현진이 태극마크를 달고 뛴 것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마지막이다. 이후에는 대표팀과 연이 닿지 않았다. 류현진은 2012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 MLB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 비키어 차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MLB 사무국이 주관하는 WBC에는 빅리그 선수들도 나설 수 있지만, 류현진의 대표팀 합류는 이뤄지지 않았다. 2013년에는 LA 다저스와 계약 첫째라 대

표팀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고도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새로운 팀에 적응하기 위해 장고 끝에 고사했다. 이후에는 번번이 부상에 발목이 잡혀 WBC 대표팀 승선이 불발됐다. 어깨 수술로 2015년을 통째로 쉬고, 2016년에도 1경기 등판에 그친 류현진은 부상 여파로 2017년 WBC에 출전하지 못했다. 2022년 6월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토미존 서저리)을 받고 재활에 들어간 류현진은 지난해 3월 개최된 WBC에도 나서지 못했다. 2010년 이후로는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 류현진은 지난 22일 8년, 170억원의 조건에 한화와 계약하고 KBO리그에 복귀하면서 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생겼다. 마침 올해 11월에는 WBSC 프리미어12가 열릴 예정이다. 류현진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지난 23일 한화의 2차 스프링캠프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떠난 류현진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대표팀에서 다시 한 번 뛴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한 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팀으로 뛰고 싶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선수로서 대표팀에 뽑힌다면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한 번 더 대표팀에 가서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경기해보고 싶다"고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해 9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야구의 금메달 획득을 이끈 류중일 감독에게 계속 지휘봉을 맡기겠다고 발표했다. 의지가 강한 만큼 류중일 감독을 비롯한 대표팀 코치진, 조계현 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KBO 전력강화위원회가 논의해 정하는 엔트리에 포함되면 류현진이 다시 태극마크를 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MLB에서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었던 류현진은 여전히 빅리그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기에 올해 부상 등의 이유만 없다면 기대를 충족시키는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야구 대표팀은 세대교체에 집중하고 있지만, 젊은 투수진에 경험을 이식하고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도 필요하다. 국제대회 경험이 풍부한 SSG의 좌완 에이스 김광현은 지난해 3월 WBC를 끝으로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다. 류현진이 전격 KBO리그 복귀를 확정지으면서 여러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 류현진의 대표팀 승선 여부에도 야구 팬들의 이목이 쏠린다.

뉴스시

순천시,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5년 연속 수상

도내 시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 명단 올라

순천시는 지난 8일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2022~2023시즌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장려상 수상 이후 5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11개 종목에서 전지훈련 및 스포츠관광 유치에 연인원 84,800여 명을 방문하고 7,209백만원의 경제유발효과를 이끌어 낸 점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내 시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올랐다. 시는 팔마주경기장, 팔마야구장, 팔마테니스

장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포츠에 최적화된 날씨와 인프라 덕분에 매년 전지훈련의 메카로 각광받아 전국의 다양한 팀들이 찾아오고 있다. 올해도 시에는 축구, 야구, 유도 등 7개 종목에서 82개 팀이 전지훈련을 위해 시에 방문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는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진행해 전지훈련으로 방문하는 선수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전지훈련 안내책자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해 동·하계 전지훈련 및 스포츠관광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김미자 체육산업과장은 "올해 3월 중순 예정인 어울림센터와 추진 중인 순천형 스포츠파크를 조성해, 시가 스포츠 메카도시로 입지를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어울림센터는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스포츠공간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을 연계해 설치한다. 순천형 스포츠파크는 단순 체육시설이 아닌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캠퍼지 등을 갖춘 가족 친화형 스포츠파크이다. 순천·김승호기자



잉글랜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제시 링가드가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 입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자탁구 전설 현정화, 세계선수권 노메달 女대표팀에 쓴소리

“특점력과 기술력 많이 떨어져”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냈던 여자 탁구 전설 현정화(55)가 세계선수권 노메달에 그친 여자 탁구 대표팀에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오늘 남자팀 경기는 기량 면에서 중국과 아주 가까웠다. 특점력이 있어서 이런 경기를 펼쳤다”며 “여자팀은 그에 비해서 특점원이나 기술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더 많이 노력해서 좁힐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 중국전에서 완패를 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경기에서 이시은과 전지희, 신유빈이 차례로 출전했지만 세계 최정상급인 중국 선수들에 차례로 패하며 매치 스코어 0-3으로 무릎을 꿇었다. 남자 대표팀이 다섯 경기 중 두 경기에서 승리하며 중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인 반면 여자 대표팀은 단 한 경

기를 해본 적이 없다. 그 정도로 한국 남자 선수들 경기 내용이 훌륭했다”며 “2-1로 앞설 때는 다시 역사를 쓰나 생각할 정도로 좋은 경기 내용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 위원장은 여자 대표팀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오늘 남자팀 경기는 기량 면에서 중국과 아주 가까웠다. 특점력이 있어서 이런 경기를 펼쳤다”며 “여자팀은 그에 비해서 특점원이나 기술력에서 많이 떨어진다. 더 많이 노력해서 좁힐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여자 대표팀은 이번 대회 8강 중국전에서 완패를 당했다. 지난 22일 열린 경기에서 이시은과 전지희, 신유빈이 차례로 출전했지만 세계 최정상급인 중국 선수들에 차례로 패하며 매치 스코어 0-3으로 무릎을 꿇었다. 남자 대표팀이 다섯 경기 중 두 경기에서 승리하며 중국을 패배 직전까지 몰아붙인 반면 여자 대표팀은 단 한 경



기도 이기지 못했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국가대표로 출전이 유력한 신유빈과 전지희가 더 분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혹독한 훈련과 더 치밀한 작전 준비로 중국을 꺾을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위원장은 중국을 이기기 위해 더 힘든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국을 잘하는 선수 뒤에 또 잘하는 선수가 있다”며 “중국을 이기려면 혼을 갈아서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EPL 출신 링가드 뜬다...K리그 흔들 특급 용병들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을 앞둔 가운데 한국 무대를 처음 밟거나 팀을 옮긴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성적과 직결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을 받는 구단은 단연 FC서울이다. 서울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출신으로 한국 프로축구 역대 최고 이목값 외국인 선수인 제시 링가드(잉글랜드)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다. 링가드는 잉글랜드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스 출신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리스트를 거치며 세계 최고 리그로 꼽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82경기 29골 14도움을 기록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 포워드를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그는 2016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1골 2도움을 올리며 주축으로 활약해 잉글랜드를 준결승에 진출시켰다. 링가드는 화려한 골 축하 행동(골 세리머니)으로 유명하다. 두 손을 모아 자신의 이름을 만드는 세리머니가 있고 프로 초창기에 했던 피리를 부는 세리머니도 있다. 한국에서는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한 축구팬은 인천공항공으로 입국한 링가드에 한국 전통 목관 악기인 단소를 선물하기도 했다. 링가드는 올해 서울에서 등번호 10번을 달고 뛰는 10번은 축구에서 에이스를 상징하는 번호다. 지난해까지 10번을 달았던 지동원은 타 팀으로 이적했다. 등번호 10번이 적힌 링가드의 유니폼은 지난 22일 온라인 판매 시작 2시간 만에 1000장 모두 매진됐다. 개막 전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

는 링가드가 지난해 7위에 그쳤던 서울을 상위권으로 도약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감독 교체 등 여여곡절이 많았던 전북 현대는 구스타보, 하와 실바, 안드레 루이스, 아마노 준 등을 내보내고 K리그 1부 무대에서 검증된 티아고(브라질)와 에르난데스(브라질)를 영입했다. 2022시즌 K리그2 경남FC를 통해 한국 무대를 밟은 티아고는 37경기에서 19골(3도움)로 득점왕에 오른 뒤 지난해 K리그1 승격팀 대전 유니폼을 입었다. 티아고는 지난해 대전에서 17골로 득점왕 주인공(울산·17골)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주빈규보다 출전 경기 수가 많아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정규리그 38경기에서 45골에 그친 전북은 공격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티아고를 낙점했다. 에르난데스 역시 검증된 선수다. 2020년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하며 한국 무대를 밟은 에르난데스는 경남FC, 인천을 거치며 K리그 통산 104경기에서 31골 1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처음 출전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서 플레이오프를 포함해 7경기 5골을 터뜨렸다. 티아고와 에르난데스는 입단하자마자 위력을 발휘했다. 에르난데스는 포항스틸러스와 ACL 16강 1차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티아고는 후반 막판 1-1 동점을 만드는 헤더 도움을 기록했다. 티아고와 에르난데스가 리그 개막 후에도 활약을 이어가며 K리그 최다 우승팀 전북을 다시 상위권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정후, MLB 시범경기 첫 경기 결장...28일 데뷔전 예상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외야수 이정후(26)가 시범경기 첫 경기에 결장했다. 이정후는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24 MLB 시범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휴식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매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은 24일 “이정후가 가벼운 옆구리 통증으로 25일 시범경기

라인업에서 빠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곧 시범경기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MLB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5일 “이정후는 오늘 타격 훈련을 했다. 28일 시애틀 매리너스와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샌프란시스코와 6년 1억 1300만 달러(약 1484억원)에 계약한 이정후는 데뷔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밥 멜빈 샌



프란시스코 감독은 지난 15일 “이정후가 (정규 시즌) 개막전 1번 타자로 나서지 않는다면 충격적일 것”이라고 말하며 일찌감치 톱타자로 낙점했다.